〔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3, No. 2 (2009) p.319~330

교육과정기 이전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한 고찰 (제1보) -초등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유혜자† · 이영숙
서원대학교 의류학과

The Contents of Clothing & Textiles Education before the 1st Curriculum (Part I) -Elementary Home Economics Textbook-

Hye Ja Yoo† · Youngsuk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won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1월 3일), 수정일(2008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2008년 12월 22일)

Abstract

The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area of elementary 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1948 to 1955 were investigated. Home economics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those days corresponds to practice acts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n present. Practical acts has the all-around concepts of the agriculture, industry and home economics Also the knowledge or skill for actual life are learned. Practical acts education was started from lessons of sewing for women under title of 'jaebong'. It can be said that practical acts education was started from clothing and textiles area. The home economics elementary textbooks of the year 1948 were composed of 21 units for 5th grade and 22 units for 6th grade. The textbook for 5th grade of 1953 was composed of 19 units, and one for 6th grade of 1955 was composed of 18 units. The clothing and textiles area accounts for 38.6% in 5th grade textbook, for 32% in 6th grade textbook of 1948 and for 31% in 5th grade of 1953 and 6th grade textbooks of 1955. The textbook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area were classified into five fields of sewing, knitting, patching, embroidering and care. In 1948, textbooks were placed a great deal of weight on sewing field education as 7 units of 15 units. The 7 units for sewing fields have suitable connection to develop. But, in the case of knitting, patching or care, just groundwork of each field was included for application to actual life without vertical connection. The contents of textbooks for clothing and textiles area in 1953 and 1955 were much alike with those in 1948.

Key words: Home economics of elementary school, Contents of textbooks, Clothing and textiles area, Curriculum, Practice acts; 초등가사, 교과서, 의생활 영역, 교육과정기, 실과

I. 서 론

우리나라의 신교육제도는 1895년(고종32년)에 일본의 교육제도 하에서 시작되었고 1942년에는 초등과에 '봉제'라는 국정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일본어로 하던 교육을 국어로 실시하면서 초중등 교과서를 한글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1946년 9월 1일부터는 초등학교 교과목이 국어, 사회생활, 이과, 산수, 보건, 음악, 미술, 가사의 8과목으로 정비되었고, 이 중 가사는 요리 · 재봉과 실과의 일부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과목으로 5, 6학년 여학생들에게만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정비되어 가던 우리나라 현

†Corresponding author
E-mail: hjyoo@seowon.ac.kr

대 교육제도는 1950년 6 · 25 전쟁으로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고 교과서의 출간도 중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기(1955년~1963년)가 공포된 1955년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 후 교과과정은 매6~10년마다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2002년부터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박순자, 2007; 정미경, 1998). 한편, 김호권 외(1983)는 우리나라 현대 교육과정기를 1945년부터 1950년까지를 '정초기', 1950년부터 1959년까지를 '재건기', 1960년부터 1969년까지는 '개혁기', 1970년 이후를 '발전기'로 분류하였다. 한편 함종규(2003)는 1차 교육과정 이전을 세분화해서 해방 직후의 임시 교과목 편제의 기간을 '과도기'로, 수정된 교과목 편제와 시간배당표가 발표된 1946년 9월로부터 1차 교육과정기 시발점인 1955년 이전까지의 기간을 '교수요목기'로 분류하였다.

1945년 8월 광복이후 3년 동안은 미국 군정청의 통치 시기였으며 1946년 3월에는 군정청 학무국에서 '한글의 첫걸음', '국어교본', '초등셈본' 등의 한글 교과서 및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였고 1946년에는 문교부가 50여종의 교과서를 발행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 본격적으로 교과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 · 25 전쟁 발발로 또다시 교과서 출간이 중단되고 교실도 없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했으나 개천가, 천막, 묘지, 산밑의 골짜기 등 노천수업 중에도 교육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고 한다(함종규, 2003). 전쟁이 끝난 1952년에는 유엔 한국재건위원단(운크라)과 유네스코, 미국의 자유아시아위원회의 물질적 원조로 교과서 발간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고 1955년에는 1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정착, 확립되어 갔다.

교과서는 교육의 내용을 체계화시킨 교수 · 학습자료로서 학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최정혜, 1997). 당시의 교사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실생활과 직결된 실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집안 형편이 어렵고 교육시설이 미흡해서 실습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부의 교육담당 부서인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성과 내용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국정 교과서를 사용토록 하였다.

실과 교육내용의 학문적 구성은 농업, 공업, 가정, 컴퓨터 분야의 종합적 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교육내용의 범위가 다소 혼란스럽다. 실과 교육은 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 명시된 교육목표인 '생활상에 필요한 보통 지식 및 기능을 익히게 하고자'하는 것에서 그 역사의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재봉'이라는 교과목으로 시작되었다. 1906년에는 보통학교령이 공포되고 1909년부터 실시된 보통학교 교육에서는 국어, 일어, 산술, 지리, 역사, 이과, 체조 이외에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교과로서 수예가 설치되었고 편물 짜는 법, 의복 꿰매는 법, 마르는 법, 의복 보존법, 세탁법 등을 익히게 하였다. 이로써 종합적인 개념의 실과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공교육의 역사적 과정에서 본다면 실과 교육은 의생활 분야로부터 출발한 셈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의생활 교육이 공교육으로 도입된 것은 1909년 보통교육시절이라 할 수 있다(박순자, 신상옥, 2000; 정성봉, 1982).

광복 직후로부터 제1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들은 일제 시대에 학습하던 교육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정된 국정 교과서들도 핵심적 내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제1차 교육과정부터 의생활영역이 실과 교과목에 포함되었는데, 이 전에 가사, 재봉, 수예, 요리 등의 명칭으로 가르쳐 오던 관련 내용들을 통합해서 광범위하게 구성하였다. 1차 교육과정이 개시된 이래 우리나라는 8~10년을 주기로 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왔다. 교육과정 개정시에는 그 시대의 주류를 이루는 교육사조나 교육과정 이론들이 교육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정성봉, 1982).

실과 교과의 교육목표는 실질적인 기능 중심의 생활교육이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일과 기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정미경, 1998). 실과 교육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습을 한 후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교과내용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내용이 학생들의 필요나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실과의 교육내용은 현재 7차 교과과정기에 이르면서 각 시기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이는 사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일록, 이은희, 2003). 이와 같이 1차에서 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의 초등실과 의생활 분야의 교육내용 및 교과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박순자, 2007; 박순자, 신상옥, 2000; 이경애, 2005; 이은주, 신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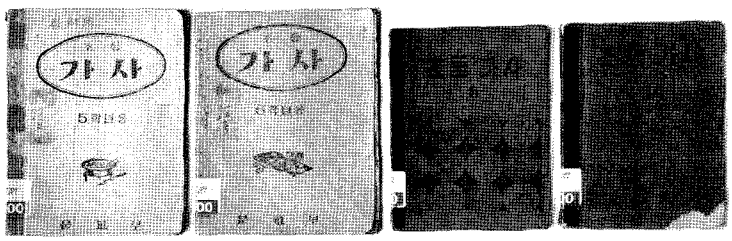
2007; 전세경, 1997; 정미경, 1998) 그 이전의 교육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정성봉(1982)은 조선말부터 1970년대까지의 실과 교과의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김호권 외(1983)는 해방 이후 현대까지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섬유 및 의류산업은 전쟁 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의류학 분야의 대학교육은 이제 학술면으로나 산업 기술면에서 큰 역할과 사회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학 분야 교육의 시발점인 제1차 교육과정 이전의 초등가사의 내용 중에서 의생활 영역의 학습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인 1946년부터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 기간인 '교수요목기'에 발행된 초등가사 교과서에서 의류학 관련 단원을 발췌하여 검토함으로써 당시의 교육내용과 단원들 간의 연계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의생활 분야는 대부분이 가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생활 분야의 학문체계의 구성은 바느질(손바느질이나 재봉틀로 생활용품 만들기), 수예(뜨개질, 자수), 세탁, 정리 및 보관, 의복에 대한 이해, 옷차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5, 6학년에 배웠던 초등가사 교과서는 평생의 교육에서 의생활 교육을 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5, 6학년에 배우는 실과에 해당한다. 8·15 광복과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비해 교과서가 귀한 편이며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교과서 <그림 1>를 열람하고 검토하였다.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의생활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하였으며 연도별로 바느질 분야, 뜨기, 깁기, 관리, 수놓기 등으로 분류해서 학습내용의 수직적 연계성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의 저자, 발행년도 및 출판사를 <표 1>에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인 초등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문교부에서 발행한 국정 교과서이며 출판내용은 <그림 2>와 같다. 1948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용 초등가사 교과서가 발행되었고 1953~1955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위한 가사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1948년에 발행된 5학년 초등가사는 출간 날짜가 7월로 되어 있어 이 당시는 학기가 9월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53년과 1955년에 발행된 교과서는 6·25 전쟁 전인 1948년 발행된 교과서와는 달리 발행일이 3월로 되어 있어 학년이 4월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행년도 표기는 서기가 아닌 단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발행'이나 '인쇄'라는 용어 대신 '박음', '펌' 등으로 사용하고 '지은이', '편이', '박은이' 등 우리 말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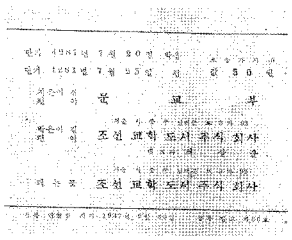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사진출처: 서원대학교 교육자료박물관)
왼쪽 두권: 1953년 5학년용, 1955년 6학년용(5·7판), 오른쪽 두권: 1948년 5학년용과 6학년용(4·6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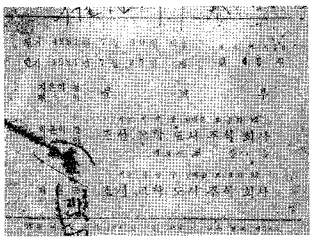
<표 1> 연구에 사용된 초등가사 교과서

학 년	발행년도	발행 및 저자	출 판 사
5	4281(1948)	문교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4286(1953)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6	4281(1948)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4288(1955)		대한문교서적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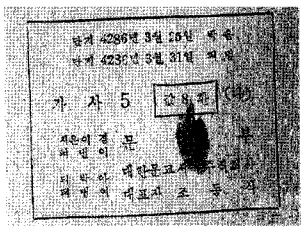
㉠ 1948년 5학년 초등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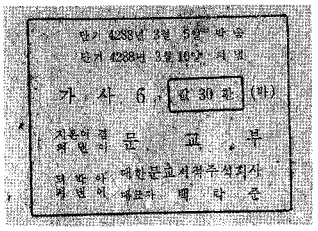
㉡ 1948년 6학년 초등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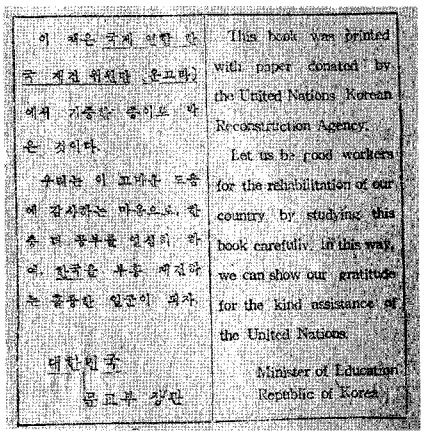
㉢ 1953년 5학년 가사



㉣ 1955년 6학년 가사



<그림 2>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들의 출판내용



This book was printed with paper donated by the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Let us be good workers for the rehabilitation of our country by studying this book carefully. In this way, we can show our gratitude for the kind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Minister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그림 3> 1953년 교과서 뒤에 적힌 감사의 글

1953년 교과서 뒤에는 6·25 전쟁 후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운크라)에서 기증한 종이를 사용했으며 이를 감사하는 글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을 부흥해야한다는 다짐하는 글을 한글과 영어로 기록해 놓았다. 감사의 글을 <그림 3>에 나타냈으며 그 당시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그럼에도 교육하고자하는 집념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 당시 교육현장의 실태를 짐작키 위해 1945년 8·15 광복 때부터 2년간 군포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김영희 선생님(현재 81세)과 1947년부터 5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했던 성낙숙 선생님(현재 81세)의 면담을 실시하여 참고하였다. 1945년 일본인 교사들이 물러났으므로 한국인 교사로 대체해야 했으나 이 당시에는 정식으로 한글 교육을 받은 교사가 없어서 우선 교사로 채용한 후 한글로 정교사자격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한글어학회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한글 맞춤법 등을 가르쳤으며 교사들은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별도로 한글을 배워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했다고 한다. 교과서가 발간되기는 했으나 그 양이 절대 부족하여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교과서를 구하기가 어려워 헌 책방에서 적당한 책을 구입해서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실습은 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느질 실습은 손바느질로 도장주머니 같은 소품들을 만들게 한 적이 있으며 재봉틀은 없었다고 한다. 이 당시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나이 편차가 매우 컸으며, 두 학년을 함께 가르치는 복식반도 있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군모 손질이나 군복 단추달기, 솔방울 줍기 등을 시키는 때도 많았으며 바느질이나 뜨개질은 학교에서 배우기보다 주로 집에서 배워서 눈대중으로 했었다고 한다. 워낙 어수선한 시대라 교과서가 출판되기는 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III. 교과내용

1948년~1955년에 발행된 초등학교 가사는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실과와 마찬가지로 5학년과 6학년 교과에 편성되었고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응급치료, 예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실과 교과서 내용은 생활 중심의 학습으로 전개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생활 경험에 의한 이해, 태도, 기능을 육성시킬 목적으로 흥미 중심의 실습을 많이 넣어 경험을 통해 기술을 습득토록 하였다. 의생활 분야의 학습내용을 <표 2>에 나타냈는데, 학문 분야 중 바느질 분야, 수예 분야, 세탁 및 정리, 보관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론이나 총론을 통해 의생활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있다. 초등가사에서 의생활 영역은 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스스로 만들어 쓰는 것에 대한 기쁨과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5학년 교과서는 총 57쪽 중 22쪽(21개과 중 8개과)이 의생활 분야로서 약 38.6%를, 6학년은 50쪽 중 15쪽(22개과 중에서 7개과)으로 약 32%를 점유하고 있었다. 1953년 초등가사 5학년용 교과서는 61쪽 중 19쪽(10개과 중 6개과)이 의생활 분야로 약 31%이고 1955년 6학년 교과서는 59쪽 중에서 18쪽(18개과 중 5개과)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1948년 초등가사 교과서에서 바느질 분야는 5학년에는 바느질의 기초, 걸레와 총채 만들기, 책보 만들기, 헌옷 깁기, 머리수건 만들기 등 6개과이고 6학년에는 양말 깁기, 덧버선 만들기, 도시락주머니 만들기, 앞치마 만들기 등 4개과이다. 수예 분야는 5학년에는 2개과인데, '뜨기'에서 뜨기 기초와 덧버선 뜨기를 '수놓기'에서 수놓기 기초와 상보 만들기를 설명하고 있다. 6학년에는 '뜨기'에서 조끼 뜨기를 실습하도록 했고, '세탁, 정리 및 보관' 분야는 5학년의 '옷과 빨래'와 6학년의 '신과 우비의 손질'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정청 통치기간이었던 1948년에 발간된 초등가사 교과서에는 의생활 영역이 5학년의 8개 단원과 6학년의 7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953~1955년에는 5학년의 6개 단원과 6학년의 5개 단원으로 되어 있다. 실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실습과 병행해서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실과 과목의 목표가 실생활에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기술의 학습 뿐 아니라 바느질이나 빨래 등을 배워야 하는 당위성과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강조하고, 학습내용을 실생활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익힘'을 통해 교과서 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힘'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교과내용에 비해 어려워서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교과내용에서는 간단한 앞치마 한 종류를 만들었는데, '익힘'에서는 여러 종류의 앞치마를 만들어보고 어떤 앞치마가 가장 편한지를 비교해보도록 한다든지, 교과내용에서는 머리 수건을 만들었는데 '익힘'에서 모자에 대해 탐구를 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초등학교 5학년 가사 과목의 의생활 영역 학습내용은 바느질, 걸레와 총채, 뜨기, 책보, 옷과 빨래, 수놓기, 헌옷 깁기, 머리수건 등 8개 단원으로 되어 있다.

2과 「바느질」은 가사에서 의생활 영역의 첫 과로서, 바느질에 대해 취미와 기술을 갖추는 것이 여자들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서 바느질을 잘 배우지 않으면 큰 후에도 바느질에 취미가

<표 2> 연구자료로 활용한 초등가사 교과서 중 의생활 분야의 목차

학 년	1948년	1953년	1955년
5학년	2. 바느질 7. 걸레와 총채 12. 뜨기 14. 책보 15. 옷과 빨래 16. 수놓기 17. 헌옷 깁기 19. 머리수건	2. 바느질 3. 머리수건 4. 앞치마 15. 버선 뜨기 16. 헌옷 깁기 17.걸레와 먼지떨이	-
6학년	4. 조끼 뜨기 6. 양말 깁기 9. 덧버선 14. 도시락주머니 16. 신과 우비의 손질 17. 앞치마 21. 이부자리	-	6. 도시락주머니 9. 어린이 앞치마 11. 양말 깁기 12. 장갑 뜨기 16. 덧버선

없고 기술도 부족하여 여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하며 바느질이 여자의 덕목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생활의 필수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남녀 구별 없이 실과를 배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절감케 한다.

7과 「걸레와 총채」는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청소도구로서 걸레와 총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제로 폐물을 이용해 걸레와 총채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헝겊'을 '헌겊'으로 표기하고 있어 헝겊이 헌 천조각이나 넝마를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12과 「뜨기」에서는 양털로 된 털실로 만든 의류의 장점을 설명하고 스웨터, 셔츠, 덧버선 등이 추운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고 착용감이 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뜨기의 재료인 바늘과 털실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털실로 덧버선 뜨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 주고 있기는 하나 한 단원에 학습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학습효과를 제대로 거두었을지는 의문이다. 뿔바늘은 현재의 코바늘을, 머리 뜨기는 사슬뜨기를, 막뜨기는 긴뜨기를 일컫고 있다. 털실 사용양의 단위로 온스를 사용했는데, 요즘 사용하는 미국식 단위인 미터와 영국식 단위인 야드나 온스를 혼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양모 털실로 뜬 옷들이 빨기에도 편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임이다. 즉, 양모제품은 축융이 일어날 수 있어 물세탁이 어렵고 아크릴 등 합성섬유라 해도 니트제품은 세탁에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는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정보와 기술이 없었던 당시의 실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 판단하기로는 세탁이 편리하다는 설명은 오류이다.

14과 「책보」에서는 손바느질로 만든 조각보 보자기의 용도를 의장보, 상보, 반짓고리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만드는 것을 고요한 성질과 참을성의 단련, 절약하는 알뜰한 마음씨의 함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편한 재봉틀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손바느질을 익힌 후 재봉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손바느질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 책보 만드는 실습을 활용하고 있다.

15과 「옷과 빨래」에서는 옷의 청결이 용모 뿐 아니라 위생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세탁은 옷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속옷의 세탁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말과 손수건 등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스스로 빨도록 하고, 이들의 빨래방법과 양잿물 사용, 삶는 세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말 빠는 요령에는 더러운 부분인 앞꿈치와 뒤꿈치를 먼저 비누칠해서 비벼 빨도록 했으며, 거기서 나온 비눗물로 나머지 부분을 빨도록 함으로써 절약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 '익힘'에서는 옷을 입는 동기와 관리, 보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16과 「수놓기」에서는 수의 종류를 동양수, 조선수, 불란서수 등으로 분류했는데, 이 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어 아쉬웠다. 학습내용은 우리나라 수의 수실, 수틀, 수놓는 자세, 문양의 소재, 마무리 등에 대한 것이고 상보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17과 「헌옷깁기」에서는 먼저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물자의 소중함을 알고 절약해야함을 강조하고, 해진 옷의 해진 크기나 모양에 따라 깁는 요령과 단추 다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 해진 옷을 꿰매는 세 가지 요령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뚫어진 구멍을 꺾어 넘긴 후 인두질을 하고 같은 색 헝겊(교과서에는 헌겊으로 표기되어있음)을 안쪽에 대어 감치는 방법이고, 둘째 방법은 헝겊을 대지 않고 같은 색 실로 곱게 뜨는 방법이며, 셋째 방법은 해진 구멍의 바깥쪽에 헝겊을 꺾어서 대고 감치는 방법이다. 현재의 한글 맞춤법으로는 헝겊으로 되어 있으나 이 당시에는 '헌겊'으로 표기되어 있어 낡은 천조각을 일컫는 의미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19과 「머리수건」에서는 청소할 때나 음식을 만들 때 머리 수건의 필요성, 그리고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큰 정사각형의 무명 같은 튼튼한 천을 삼각형이 되도록 반으로 자른 후 단을 꺾고 감치거나 박거나 공그르거나 해서 완성해야하며 앞면에 간단히 수를 놓으면 더 좋다고 하였다.

1948년 초등가사 5학년 교과서에서 8개 단원이었던 의생활 영역이 1953년도에는 바느질, 머리수건, 앞치마, 버선 뜨기, 헌옷 깁기, 걸레와 먼지털이 등 6개 단원으로 줄었다. 또한 단원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1948년도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바느질, 머리수건, 헌옷 깁기, 걸레와 먼지떨이 등 4개 단원은 순서가 바뀌었고, '걸레와 총채'로 표기했던 제목을 '걸레와 먼지떨이'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옷과 빨래', '수놓기'의 2개 단원은 없어졌는데, '옷과 빨래' 단원은 학교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학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가정에

서의 교육으로 가능한 분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고, 수놓기는 학교나 가정에서 실습할 만한 여건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환경에서 바느질, 깁기, 뜨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원에서 일부 실습내용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 1948년도 교과서에서는 손바느질로 책보를 만들었으나 1953년 교과서에서는 앞치마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뜨기'가 버선 뜨기'로 바뀌었다.

내용이 동일한 4단원의 경우 대부분은 그대로 옮겨져 있으나, 3과 '머리수건'의 경우는 1948년도 교과서에 "책보 만한 것을 삼각형으로 둘에 낸다."로 막연하게 설명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55~60cm로 치수를 제시해주었고 자르는 선과 단접기 등에 대해 그림을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1948년도에 포함되어 있던 '책보' 만들기 단원이 없어지면서 치수를 제시해줄 필요가 생겼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보기에는 너무 막연했기 때문에 설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되었다.

4과「앞치마」는 머리수건 만들기에 이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마름질과 바느질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재료는 새 옷감으로 만들지 말고 해져서 못 입게 된 옷을 활용해서 만들도록 권하고 있다. 원 폭, 허리와 끈, 단다리(바이어스 테이프), 호주머니의 4부분의 마름질할 치수와 봉제할 치수를 각각 그림으로 나타냈다. 단다리는 색 헝겊을 쓰고 시접은 모두 1cm로 하고 시접을 꺾을 때 마다 인두질(다림질)을 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15과「버선 뜨기」는 1~2세용 어린 아기의 덧버선을 코바늘로 고리얽이(고리뜨기), 짧은얽이(짧은뜨기)로 뜨는 코수와 단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948년도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단원의 제목이 '뜨기'로 되어 있었고 바늘과 털실의 종류, 털실감기, 뜨는 방법과 요령 등 뜨기의 기초를 다루고 난 후 코바늘로 덧버선 뜨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뜨기의 기초에 대한 설명 없이 어린 아기의 털버선 뜨기를 설명하고 있어 뜨기의 기초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948년도 초등가사 6학년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은 조끼 뜨기, 양말 깁기, 덧버선, 도시락주머니, 신과 우비의 손질, 앞치마, 이부자리 등 7개 단원이며, 이들의 학습내용을 5학년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4과「조끼 뜨기」는 5학년에서 배운 뜨기의 기초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털실로 뜬 옷의 보온성을 강조하고 약 10온스 정도의 굵은 털실과 두 개의 대바늘로 조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앞판과 뒷판을 평면으로 각각 뜬 후 양편 옆부분을 코바늘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뜨는 방법은 먼저 80코를 만들고, 2코씩 뒤뜨기와 앞뜨기를 2번씩 반복하는 고무편으로 약 6cm 정도 단 부분을 뜬 후 평편으로 몸판을 뜬다. 고대는 19코로 하고 코를 늘이는 방법을 배우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6과「양말 깁기」는 5학년에서 배운 바느질 기초와 헌옷 깁기에서 연계되는 단원으로 헌옷 깁기는 직물로 된 옷을 바느질로 깁는 것인데 비해 양말은 편성물로서 코가 풀리는 특성을 지녔으므로 보다 높은 학년의 단원에서 다룬 것이 적절하다. 양말은 뚫어진 다음에 깁는 것보다 뚫어지려고 할 때 깁는 것이 모양도 낫고 더 오래 신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안에 전등알이나 공 등을 넣고 기우면 편리하다. 바닥이 많이 해졌을 때는 종이로 본을 떠서 헝겊을 마른 후 감쳐야 튼튼하다고 하였다. 이 당시의 양말은 면섬유로 만들어져 '피복 중에 양말만큼 잘 뚫어지는 것도 없다'고 설명할 만큼 약했고 물자가 귀했던 시대이니 만큼 양말을 깁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과「덧버선」은 잘 해지는 양말을 오래 신기 위해 튼튼한 헝겊으로 된 덧버선을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덧버선을 만드는 방법은 같은 모양 넉 장을 마른 후 두 장씩 이어서 발바닥의 중앙부분에 솔기가 생기는 방법으로, 바느질이 간단하기는 하나 발바닥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솔기를 양편으로 가르도록 하였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자기 발에 맞춰서 본을 뜬 종이를 헝겊에 대고 마른 후 수눅을 꺾고, 좌우편을 합하여 박아서 완성하도록 하였다. 수눅이란 버선 등의 솔기를 일컫는 낱말로 요즘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는 단어이다.

14과「도시락주머니」는 9과의 덧버선 바느질을 실습한 후 만드는 것으로 도시락의 밥을 덜 식게 하기 위해 안에 솜을 두고 누벼서 만들도록 하였다. 겨울에 꽁꽁 언 찬밥을 먹는 것은 단련은 되지만 위생상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어 그 당시의 형편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사방 27 헝겊 두 겹을 창구멍을 내고 박는다. 솜을 두고 뒤집은 후 창구멍을 박고 간격을 고르게 손으로 누빈다. 세 귀를 맞추어 감치고 나머지 한 귀에는 끈을 만들어 달아 완성한다.

16과「신과 우비의 손질」은 5학년의 정리정돈 단

원인 「옷과 빨래」에 연계된 내용이다. 당시는 지금에 비해 흙길이 많을 때였으므로 운동화, 가죽구두, 고무신, 고무장화, 짚신이 흙이 묻거나 비에 젖었을 때의 손질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흙이 묻거나 비에 젖으면 운동화는 말려서 흙을 떨어내야하고, 가죽구두는 신문지로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 후 구두약을 발라서 닦아야 하고, 고무신은 비누칠을 해서 물로 닦고, 고무장화는 물로 닦은 후 신문지를 말아서 넣어두고, 짚신은 흙을 떨고 햇빛에 말린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무제품은 햇빛, 열, 산소에 약하므로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우산, 양산, 우비의 사용 후 손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지우산은 종이로 만든 우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젖은 지우산을 강한 햇빛에 말리면 종이가 팽팽해져서 찢어지게 되므로 반만 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 후 접어두고, 양산은 살이 녹슬지 않게 햇빛에서 바짝 말려서 두고, 우비는 물로 씻어서 그늘에서 말린다고 설명하였다.

17과 「앞치마」 단원은 1948년 초등가사 바느질의 마지막 단원으로, 실습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치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재료는 헌옷이나 쓰다 남은 조각천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먼저 신문지에 본을 뜨고 헝겊에 그려 마른 후 4.5 넓이의 헝겊으로 주름을 잡아 가장자리에 프릴을 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끈을 만들어 양쪽에 달고 손수건 넣는 주머니도 만들어 붙이고 간단한 수를 놓아서 완성하도록 하였다.

21과 「이부자리」는 이불, 요, 베개, 모기장, 자리옷(잠옷) 등이 갖추어야 할 위생적, 경제적 조건과 올바른 관리생활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이다.

1955년 6학년 초등가사에는 의생활 영역이 '도시락주머니', '어린이 앞치마', '양말 깁기', '장갑 뜨기', '덧버선'의 5개 단원으로 1948년의 7개 단원에 비해 2개 단원이 감소되었다. '도시락주머니', '양말 깁기', '덧버선'은 동일하나, 1948년 6학년에 있던 '앞치마'는 5학년으로 옮겨졌고 대신에 '어린이 앞치마'가 추가되었다. '조끼 뜨기'는 '장갑 뜨기'로 바뀌었고 '신과 우비의 손질'과 '이부자리'는 없어졌다. 6과 「도시락주머니」와 11과 「양말 깁기」는 동일하고 16과 「덧버선」의 내용은 달라졌다.

9과 「어린이 앞치마」는 5학년의 머리수건과 앞치마 만들기와 연계되는 바느질 분야의 내용이다. 종이에 꽃모양으로 된 어린이 앞치마의 본을 뜨고 헝겊에 본을 대고 마른 후 가장자리에 단다리(바이어스)를 박는다. 하트 모양의 주머니를 달고 몸판 위부분의 양쪽으로 끈을 붙이고 끈의 끝부분에 단추를 단다. 몸판의 허리 부분에 단추 구멍을 만들어 완성한다. 이 학습내용은 중복과 발전이 잘 조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복습을 위한 본뜨고 마름질하는 내용이 중복되었고, 바이어스 달기, 단추구멍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12과 「장갑 뜨기」는 털실 1온스와 0호 대바늘로 5~6세용 벙어리 장갑을 메리야스뜨기(평편)로 뜨고 끈으로 연결해서 완성하는 내용이다. 48코를 만들고 고무 뜨기로 손목 부분 3.5cm를 뜨고 엄지손가락 부분은 12코에 4코를 늘려서 16코로 3.5cm를 뜨고 12코로 줄인 후 실을 당겨 마무리한다. 네 손가락 부분은 36코로 뜨다가 적당한 길이가 되면 서서히 12코가 될 때까지 줄여서 마무리한다. 뼈바늘(코바늘)로 고리 얽기를 해서 끈을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 장갑에 꿴다.

16과 「덧버선」은 1948년도 6학년 교과서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개선된 모양으로 대체되었다. 전에는 두 장을 마주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바닥 한가운데로 시접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발바닥과 뒷굼치와 발등 부분을 각각 마름질해서 여러 겹으로 누빈 후 박아서 연결한다. 발등 부분에는 끈 꿰는 곳을 접어서 감침질하고 끈이나 고무줄을 꿰어서 완성한다.

IV. 초등가사 의생활 영역 학습내용의 연계성

이은주, 신혜원(2007)에 의하면 연계성은 수평적 연계성과 수직적 연계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년 내의 영역간 연계성은 수평적 연계성이고 선행 경험 또는 학습내용을 기초로 하여 점차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는 계열성과 계속성의 연계성으로 보는 선행 및 학년간 연계성은 수직적 연계성이다. 대체적으로 연계성은 수평적 연계성보다 수직적 의미로 더 자주 적용된다. 학년간 교육내용의 연계성이란 체계적인 학습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정혜(2004)는 연계성이란 이전의 학습된 학문을 바탕으로 교육내용이 계속성, 통합성, 반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간의 관련성을 높이는 것이며, 교과내용이 지나치게 많으면 내용에 대한 원칙을 선정하기 어렵고 학습에 대한 흥미

를 갖게 하기 어렵다고 했다. Taba(1962)는 학습의 연계성을 계속성과 계열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누적학습개념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점진적 심화와 확대를 강조하고 특정개념의 학습에 있어서 통합으로 이끌어 주도록 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즉, 교과내용의 연계성은 교육내용들이 연속성, 계열성, 반복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누적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인 것이다.

이상에서 학습내용을 살펴본 단원을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서 연결체계를 정리해보았다. 연계성을 분석함에 있어 양정혜(2004)가 선정한 분석기준을 이용하였다. 첫째, 계속성을 강조하는 단순한 중복, 둘째, 심화 및 확대를 통해 수직적 전개를 이루는 교육내용의 발전, 셋째, 내용 누락이나 불충분한 설명으로 내용의 수준이 하위요소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격차 등의 분석기준을 이용하였다.

<표 3>은 1948년도에 발행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의 단원들을 바느질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내용의 계통을 연결해서 나타낸 것이다. 바느질 분야는 5학년의 첫 번째 단원인 '바느질' 단원에서는 바느질할 때의 올바른 자세와 홈질 등 바느질의 기초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은 '걸레와 총채'에서 간단한 재단과 손바느질로 걸레와 총채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3번째 단원인 '책보'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의 보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바느질로 책보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바느질 분야의 4번째이며 5학년의 마지막 단원인 '머리수건'에서는 가장가리의 단을 꺾어 시친 후 감침이나 박음질 또는 공구르기 등으로 만들도록 하였고 수를 놓아 쓰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은 6학년에서 처음 나오는 단원인 '덧버선'에서는 발에 맞추어 종이로 본을 뜨고 헝겊에 대고 마른 후 박음질로 덧버선을 만드는 법을 학습하고 있다. 다음의 '도시락주머니'는 쓰임새와 성능, 재료,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도시락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 헝겊을 두 겹으로 만들고 사이에 솜을 두고 누벼서 만들도록 가르치고 있다. 다음의 '앞치마'에서는 먼저 신문지에 본을 뜨고 헝겊에 신문지 본을 놓고 그린 후 재단을 해서 주름을 잡고, 단을 만들고, 주머니도 달고, 허리 양끝에 끈을 박아 달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바느질 7개 단원을 통해 기초 홈질로부터 시작해서 본 뜨기, 마름질, 재단, 솜 두고 누비기, 주름잡기 등 학습의 난이도가 대체로 무난한 내용체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책보 만들기와 머리수건 만들기는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내용체계 상 중복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앞치마 만들기는 이전의 학습 내용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내용체계의 단계상 격차의 폭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뜨개질 분야는 5학년에 '뜨기(편물)'와 6학년에 '조끼 뜨기'로 각 학년에 한 단원씩인데, 단원수가 적어서 내용체계가 점진적인 발전이나 심화로 구성되지 못하고 격차가 크다. '뜨기'에서 편물의 특징, 바늘과 털실의 종류, 뜨개질할 때의 손의 모양새 등 기초를 설명한 뒤 코바늘을 이용해서 코를 늘여가면서 덧버선을 뜨도록 되어있다. 6학년의 '조끼 뜨기'는 대바늘을 이용해서 코를 늘이거나 줄이고 봉합해서 조끼를 완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소품이 아닌 조끼를 뜨려면 기술도 실습량도 많은 편으로 단원간의 난이도의 격차가 커서 교사의 각별한 지도와 준비 없이는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진다.

깁기 분야는 5학년에 '헌옷 깁기'와 6학년에 '양말 깁기'로 구성되어 있다. '헌옷 깁기'는 기초 바느질을 다 익히고 난 후 구멍 난 부분을 정리하고 꺾어 넘기고 곱게 뜨거나 감침을 해서 깁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양말 깁기는 편성물 구조인 양말의 고리를 이어서 깁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특히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원이었다.

'관리' 분야는 '걸레와 총채', '옷과 빨래', '신과 우비의 손질', '이부자리' 등의 전반적인 의생활 관리에

<표 3> 1948년도 초등가사 5, 6학년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의 분야별 내용

구 분	내 용
바느질	바느질⇒걸레와 총채⇒책보⇒머리 수건⇒덧버선⇒도시락주머니⇒앞치마
뜨기(니트)	뜨기(기초/덧버선 뜨기)⇒조끼 뜨기
깁 기	헌옷 깁기⇒양말 깁기
관 리	걸레와 총채⇒옷과 빨래⇒신과 우비의 손질⇒이부자리
수놓기	수놓기

대해 가르치고 있다. 5학년에는 청소와 세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6학년에는 운동화, 가죽구두, 고무신, 짚신 등의 관리와 지우산, 양산, 우비 등의 관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부자리의 위생관리와 이불솜의 관리, 배게, 모기장, 자리옷 등의 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어 6학년에는 5학년에 비해 보다 난이도가 높은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는 1953년도와 1955년도에 발행된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의 단원들을 <표 3>과 마찬가지로 바느질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계통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수놓기가 없어졌으므로 실제로는 4분야로 분류한 셈이다. 1953년 5학년과 1955년 6학년 초등가사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 단원의 내용체계는 1948년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느질 분야에서는 책보 만들기와 머리수건 만들기가 중복된 학습내용이었으므로 '책보 만들기'는 없애고 앞치마와 도시락주머니 만들기를 한 후 단다리(바이어스)가 둘러진 어린이 앞치마를 만들도록 하였다. 1948년도 교과서의 덧버선 만들기는 동일한 본 4장을 발바닥 가운데에 솔기가 되도록 두장씩 이어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발바닥, 발등, 발뒤꿈치 부분을 각각 본을 떠서 만드는 방법으로 난이도가 높으므로 제일 마지막 단원으로 이동하였다.

뜨기는 5학년에는 코바늘로 애기 덧버선을 뜨도록 하였고, 6학년에서는 대바늘로 5~6세용 벙어리장갑을 뜨도록 하였다. 1948년도의 '뜨기' 분야 내용에 비해 교실에서 실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1948년 초등가사에 있던 수놓기 단원이 1953년에는 없어졌는데 이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는데, 수놓기는 실생활에서의 요구도가 바느질이나, 뜨기, 깁기 등에 비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948년 초등가사에 있던 관리 분야에서 '옷과 빨래', '신과 우비의 손질', '이부자리'가 1953년에는 없어지고 '걸레와 먼지떨이'만 남겨두었다.

걸레와 먼지떨이는 집안의 청결과 청소에 대해 설명하고 바느질을 해서 걸레와 먼지털이를 만들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듯하다. 이부자리 손질은 초등학생이 할 집안의 일로 하기엔 적절치 않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생활 영역의 교육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등가사의 학습내용을 검토하고 <표 5>에 나타냈다(손정규 외, 1948). 초등학교 가사 교과서는 주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실습 위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중등가사의 의생활 영역은 섬유나 직물의 생산과 관리 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의복의 역사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원료가 귀했고 국가 재건이 큰 과제였던 시기로서 원료인 섬유나 직물을 생산하는 데에 모든 힘들 기울였으므로 중등가사에는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이 주로 피복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같이 중학교의 교과내용이 깊고 넓어서 현재의 고등학교 수준을 능가할 정도였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의 의생활 영역 교과내용의 연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중학교가 여성들의 교육으로는 가장 상급의 고등교육 단계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46년~1954년에 문교부에서 발간한 초등가사 교과서들을 분석하고 당시의 교사들을 면담함으로써 8 · 15 광복 이후로 부터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 기간 동안의 의생활 교육을 살펴보았다. 그 당시에 발행된 국정 교과서인 초등가사 의류학 관련 단원들을 발췌하여 학습내용을 살펴보고 단원들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1948년 초등가사의 경우 5학년용 교과서는 의생활

<표 4> 1953년, 1955년 초등가사 5, 6학년 교과서 의생활 영역의 분야별 내용

구 분	내 용
바느질	바느질⇒걸레와 먼지떨이⇒머리수건⇒앞치마⇒도시락주머니⇒어린이 앞치마⇒덧버선
뜨개질	버선 뜨기⇒장갑 뜨기
깁 기	헌옷 깁기⇒양말 깁기
관 리	걸레와 먼지떨이
수놓기	없어짐

<표 5> 1948년도 중등가사의 의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학 년	단 원 명	학 습 내 용
1학년	1-5. 나의 의복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정복을 입는 이유, 의복의 위생, 정복의 손질법
	3. 무명에 대한 연구	생산, 무명올실의 성질, 무명천 짜기, 가공, 빨래, 푸새와 다림질
2학년	3. 삼(麻)에 대한 연구	삼올실의 성질, 삼의 생산, 삼베 짜기, 베 빨래, 푸새, 손질, 다림질
	4. 빛갈과 모양	빛깔의 종류, 원리, 배색, 의복의 빛깔 맞춤
	5. 비단에 대한 연구	생산의 경로, 비단의 조직, 성질, 빨래, 푸새, 손질과 다듬질
3학년	4. 양털(洋毛)에 대한 연구	생산, 털올실, 모직물 짜기, 세탁
	5. 인조직물(人造織物)에 대한 연구	인조견사, 인조올실, 세탁, 다림질
	6. 교직물(交織物)	교직물이란, 교직물의 종류, 교직물 취급에 대한 주의
	8. 얼룩빼기	주의할 점, 얼룩빼기 방법
	9. 옷 정리와 설비	의류 손질의 필요, 의류 손질과 간직상의 주의, 옷 간직법
4학년	3. 옷에 대한 역사적 찾아보기와 현재	옷의 발달, 우리나라옷의 발달, 각 나라의 옷, 옷감 고르기
	4. 빨래의 원리	빨래의 목적, 비누의 작용, 흡착성 효과, 잿물의 세척작용, 세제
	5. 물들이기	옷과 물들이기의 관계, 물들이기 약제, 누이기, 물들일 때의 주의, 물들이는 법
	6. 이부자리와 복장의 부속품	이부자리와 위생, 손질과 간직법, 복장의 여러가지 부속품(모자, 장갑, 목도리, 우산과 양산)

분야가 약 38.6%를, 6학년은 약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1953년 초등가사 5학년용 교과서는 의생활 분야가 약 31%이고 1955년 6학년 교과서는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1953년 5학년과 1955년 6학년 초등가사 교과서의 의생활 분야 내용체계는 1948년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48년 초등가사 5학년 바느질 분야 학습내용 중 '책보 만들기'와 '머리수건 만들기'가 중복된 학습내용으로 판단되었는데, 1953년도에는 '책보 만들기'를 없애서 중복을 해소하였다. 뜨기는 5학년에는 코바늘로 애기 덧버선을, 6학년에서는 대바늘로 5~6세용 벙어리장갑을 뜨도록 하였다. 1948년 초등가사에 있던 수놓기 단원이 1953년에는 삭제되었는데, 이는 수놓기가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바느질이나, 뜨기, 깁기 등에 비해 낮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생활 학습내용의 세부 분야를 바느질, 뜨개질, 깁기, 관리, 수놓기의 5개로 나누고 분야별로 내용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바느질 분야는 7단원(5학년 4단원, 6학년 3단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단원에 따라 기초로부터 학습내용이 점차 발전되면서 수직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뜨개질이나 깁기나 관리 분야는 연계성보다는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학습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학년에 따라 내용을 발전시켜 구성하였다.

의생활 영역의 교육에 대해 초등가사와 중등가사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초등가사 교과서는 주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실습 위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중등가사의 의생활 영역은 섬유나 직물의 생산과 관리 등 피복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의복의 역사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학습내용이 초등학교에 비해 이론 위주이고 급격히 어려워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중학교가 여성들의 교육으로는 가장 상급의 고등교육 단계였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이 당시의 중등가사의 의생활 영역과 현재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의생활 영역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호권, 이동희, 이홍우. (1983). *현대교육과정론*. 서울: 교육출판사.

박순자. (2007). 2007 교육과정 개정 전과 후의 실과 및 가정과 의생활 교육내용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37-60.

박순자, 신상옥. (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교육의 역사적 변천 비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65-76.

박일룩, 이은희. (2003). 의생활 교육내용의 필요도와 실천

도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3), 89-103.
손정규, 조기홍, 표경조, 주월영. (1948). *중등가사 1, 2, 3.* 서울: 장왕사.
양정혜. (2004). 실과와 가정교과의 식생활 교육내용의 연계성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3), 27-41.
이경애. (2005). 초등실과 가정 영역 교육내용 적정성 평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8*(1), 145-166.
이은주, 신혜원. (2007). 초등실과, 기술가정, 가정과학 교과내 의생활 영역의 연계성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1), 1-14.
전세경. (1997). 초등실과(가정)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39-52.
정미경. (1998). 현대 의생활 변화에 따른 초등실과 의생활 교육내용 타당성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1*(2), 1-17.
정성봉. (1982). 실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4*(1), 55-69.
최정혜. (1997). 초등실과 교과서 분석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17-30.
함종규. (2003).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Taba, H. (1962). *The process of educa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